미국의 신보수주의 : 문화의 정치와 뉴스대중주의*

강 명 구

이 논문은 바로 미국사회의 사회적 화해와 타협을 이루어내는 과정으로서 집단적 신념과 가치의 생산과 재생산 메카니즘에 관심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신보수주의 성립과정을 사례로 들어 집합적 신념과 가치의 생산자인 의식산업(consciousness industry) 가운데서도 언론매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계급간 담합의 한 측면을 드러내 보고자 했다.

2절과 3절에서는 미국사회에서 진행되는 공공영역의 성격변화를 주로 사유화 과정, 즉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언론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정이 시장메카니즘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정보의 소비자로 변화되고 정치의 참여주체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 조건들을 검토했다.

네번째 절에서는 미국사회에서 신보수주의에 대한 규정과 이것이 성립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여기에서 신보수주의가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 정치사상을 이어받고 있으며 주로 미국의 보수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을 구성했던 지식인 집단이 미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이념적 틀로서 제기한 것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신보수주의의 성립과정에 대해 80년대 레이건 당선과 재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언론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는 쟁점을 다룬 몇가지 테제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카터의 실패와 레이건의 성공'이라는 경제적 측면, '민주당의 보수화'라는 현실 정치이념의 선택, '문화의 정치'란 측면에서 '뉴스 대중주의와 신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운동을 통해 표출된 대립과 갈등의 귀결인 보수진영의 승리와 하층과 소수민족의 정치적 배제' 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신보수주의의 성립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경제적 쇠퇴와 정치적 위기에 따른 지배블럭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배태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언론은 미국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과 판단능력에 따라 '여론'을 반영하기 보다는 전통적 대중정서인 '미국의 부활'에 호소함으로써 대중을 참여하는 주체로 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2절에서 검토된 공공영역의 시장으로의 편입과 그에 따른 뉴스의 상품화가 가져온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전제가 되어온 견해는 미국사회가 다양한 집단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2차대전 이후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합의와 화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의 기본적 원천인 자본과 노동사이의 계급갈등이 약화되고 계급타협이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에 관심이 있었다.

* 자료수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이세진군에게 감사드린다.

미국사회에 있어 계급타협의 메카니즘이 무엇이냐 하는데는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복지정책의 확대, 산업평화, 임금정책, 경제성장 등의 정책을 통해 노동부문을 포섭했다는데 대강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듯이 미국과 같이 안정된 선진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사회적 통합의 근간은 여러 집단들이 체험하고 표명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욕구가 기존의 여러 제도에 의해 예측되고 충족되는 장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미국사회는 정당성확보를 위해 첫째, 대중들에게 사회 각집단들이 명확히 표명하는 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둘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간에 연대의식을 가능케하는 집합적 신념과 가치의 전달과 재생산의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바로 미국사회의 사회적 화해와 타협을 이루어내는 과정으로서 집단적 신념과 가치의 생산과 재생산 메카니즘에 관심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신보수주의 성립과정을 사례로 해서 집합적 신념과 가치의 생산자로서 의식산업(consciousness industry)의 역할, 특히 언론매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계급간 담합의 한 측면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Ⅱ. 미국사회에 있어 공공영역의 성격 변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집합적 신념이 생산되는 공공영역(혹은 공개된 장)은 국가기구와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어 있다. 18, 19세기 유럽사회에 있어 공공영역이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반면, 20세기 이후 토론과 정보유통의 공간에 국가기구와 자본의 개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소위 여론이나 여론정치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공공영역에서 국가와 자본이 여론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론형성의 주체로 기능하게 되면서 대중은 단순히 여론의 소비자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여론정치를 중심으로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가 미국사회의 계급타협 혹은 담합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미국사회 지배블럭이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양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론적 문제가 제기된다. 영국에서의 대처리즘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나타났듯 '권위주의적 대중주의'(Authoritarian populism)와 '선량한 시민'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로 구성되는 '두개의 국가'(Two-nations Thesis) 등의 개념은 결국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는 양식의 차이라 할 수 있다(Hall, 1980, 1985 ; Jessop, Bonnett, Bromley & Ling, 1988). 이 글이 주로 신보수주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에 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Hall에 의해 제기된 권위주의적 대중주의의 성립에 있어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이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의 차이 때문에 대중의 동의를 얻어내는 미국적 양식이 무엇이냐를 규명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Hall이

1 특히 노동과 자본의 타협에 대해서는 배영수(1992:1993)가 좋은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제기한 권위주의적 대중주의의 테제가 시사하는 헤게모니 동원의 양식을 참고하고자 한다. 대처리즘이 대중들이 지닌 상식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체계인 민족, 가족, 의무, 권위, 가부장 등의 상징과 자기이익, 경쟁적 개인주의, 반국가주의(anti-statism) 등의 가치를 결합함으로써 대중들의 자발적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우리의 주제인 미국의 신보수주의 성립을 해명하는 데도 많은 시사가 된다는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미국사회에서 신보수주의가 성립하는 과정을 보면 전통적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결합해 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얻어내는 대중주의적 성격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뒤에 해명이 되겠지만 미국 신보수주의의 성립은 대중들의 지지,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대중주의 뿐만 아니라 엘리트집단과 지배블럭에 의한 신화의 창출과 분위기의 형성, 대중들이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무지의 상태로 투표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과정의 전개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사회에서 진행된 공공영역의 성격 변화이며 특히 시장에 의한 공공영역의 개입 문제이다. 신문과 텔레비전, 선거, 여론정치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핵심적 제도들이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대중들이 참여의 주체라기보다는 소비의 주체가 되고 공공영역도 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획득하는 공간이기보다는 주어진 상품을 선택, 소비하듯 주어진 이슈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형성되는 공간이 되어버린다.

미국사회에 있어 이와 같은 공적영역의 특성은 몇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19세기 유럽사회에 있어 여론형성의 주체는 부르조아지였고, 하층 농민, 노동자계급은 시위와 저항을 통해 집단적 의사표현을 했다. 계급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신흥시민계급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이 운영되었다. 이 때문에 부르조아 계급의 이념이나 가치가 하층계급에게 전파되고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문자해독율의 증가, 대중언론매체의 성장 등은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급집단들의 생각과 사고가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은 경제적·정치적으로 권력을 지닌 집단에 의해 조종되는 결과를 낳았고, 하층계급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스스로의 의견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다른 계급의 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된다. 대중 언론매체의 사적 소유구조는 바로 이러한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부르조아지 계급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케했던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매스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성립은 바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여론의 형성이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사회적 위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법률적으로 공공영역의 사유화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검열의 폐지, 발행제한 조항의 폐지,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법, 지적소유권 등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법률이 사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원칙(free flow of information doctrine)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라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둘째, 공공영역의 성격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대중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양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18세기까지 대중의견은 자발적 수단, 즉 폭동이나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표출되었던 반면,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보통선거라는 정치적 장치가 주된 대중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다. 선거가 시위나 폭동과 같은 수단과 다른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대중의사 표현의 매개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는 시위나 집회와 달리 대중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기구에 의해 정책적으로 고안된 장치라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다른 선진사회와 마찬가지로 미국사회에서 대중들은 자신들의 요구나 의견,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와 집회, 청원, 로비, 소송 등의 수단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일반대중들에게 선택가능한 수단은 투표라는 장치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정치에 있어 선거참여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고, 대다수 대중들은 투표 이외의 정치적 참여의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다(Verba and Nie, 1972).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가 대중들의 의사표현이나 정치참여의 장치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중들이 선거참여가 가장 적절하고 정당한 의사와 불만의 표출수단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선거의 제도화와 그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공공영역에 있어 의사표현의 양식이 자발적 수단으로부터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세째, 미국사회 정치과정 안에서 여론의 성격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사회에 있어 정책 결정과정의 정당성은 그것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근거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론에 의하면 대중의 의지와 인민주권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현대 미국사회에 있어 소위 '인민의 의지'는 과학적으로 측정된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된다. 대중의 의견은 곧 여론조사(polling)의 결과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여론조사 만큼 대중의 정서와 의견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수단이 없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독자의 편지, 정부기관에 접수되는 민원, 집회에서의 공적연설, 시위나 폭동 등, 어떠한 매체보다도 여론조사는 대중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대중의 의사를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의 형성과 측정방식이 여론의 성격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Ginsberg(1986)에 따르면 자발적 의사와 행동을 통해 표현되던 대중의 의견이 여론조사기관를 통해 수동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의견의 자발성, 표출욕구의 절박성 등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 특정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강력한 관심과 이해를 지닌 사람의 의견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표출되는 여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표출되는 여론의 차이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위, 항의방문, 파업, 소송 등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의견에 비해 여론조사를 통한 표출은 대응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대다수 대중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위와 항의가 빈발할 때 '대다수 침묵하는 대중'

(silent majority)들은 정책결정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답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는 행동보다는 태도, 집단 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는데서도 여론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커뮤니케이션이 자본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대중들은 고립화된 정보의 소비자로 변화한다. 대중들의 고립은 1) 욕구의 집단적 충족의 부재, 2) 집단적 토론의 부재, 3) 집단적 목표설정과 결정능력의 부재를 초래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미국사회 정치과정 안에서 공공영역의 역사적 행동과 공공영역이 시장메카니즘과 결합됨으로써 생겨나는 성격변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미국사회의 변화와 언론시장의 현황을 몇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신보수주의의 내용과 그것을 떠받치는 사회세력의 형성을 미국정치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들과 관련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Ⅲ. 미국사회의 변화와 언론시장의 현황

이번 절에서는 미국사회의 구조변화와 언론시장, 언론의 내용, 정보와 프로그램의 소비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신보수주의 성립에 있어 미국언론의 역할을 조명하는 하나의 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료는 주로 보가트(Leo Bogart)가 최근 편집한 『미국미디어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언론의 변화와 수용자에게의 도달범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배포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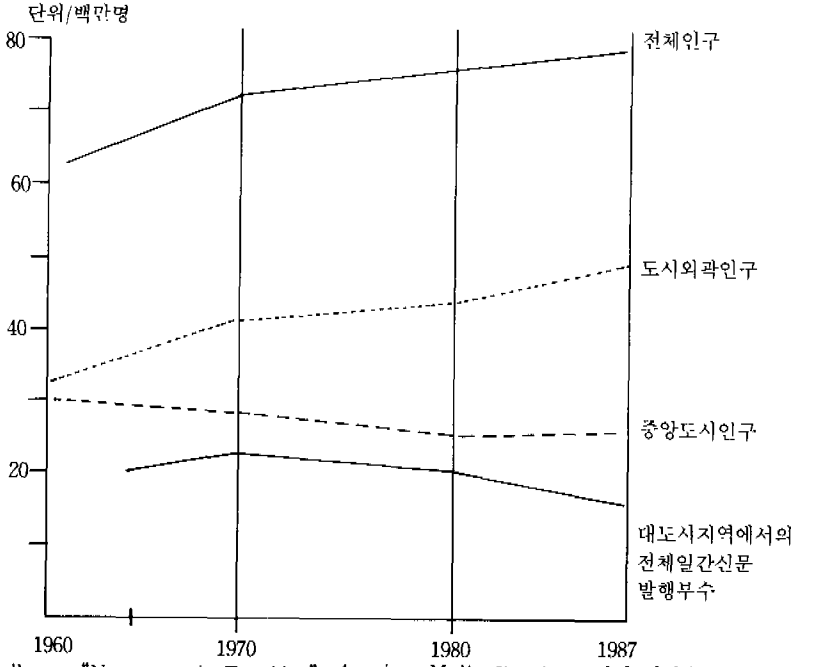
1. 인구변화와 미국신문의 변화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20여 대도시에서, 인구는 6% 증가한 반면 신문 발행부수는 21.9%나 감소하였다. 이는 대도시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이 대도시의 백인인구가 20% 감소하였고 현재 백인인구 가운데에도 스페인계와 극빈노인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도시안에서 범죄와 폭력이 만연해서 신문의 가정배달이나 가두판매를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경제와 사회구조의 변화는 신문의 주된 광고주인 도심의 소매상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매상들은 중산층을 따라 연쇄적으로 외곽지역으로 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주변의 변두리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직접 우편광고를 하고 있다. 도심의 석간신문들은 정오도 되기 전에 신문을 인쇄해서 도심의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전에 외곽지역으로 신문을 실어 날라야 한다. 석간신문의 배포가 조간신문에 비해 더 도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심의 변화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다. 이처럼 도심지의 몰락으로 전체 신문의 발행부수가 세계2차대전 이후 감소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가정당 판매신문부수의 비율은 1948년 128 : 100 에서 1987년에는 71 : 100 으로 격감했다. 이렇게 신문발행부수가 줄어드는 원인는 매우 많고 또 복잡하다.

우선 구독료가 오르고 있으며, 어떤 신문들은 배포에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외곽지역

〈그림 1〉 미국의 인구변화와 신문 발행부수(표준대도시통계지역 : SMSAs)



* Leo Bogart, "Newspapers in Transition", *American Media* Chap.4 p.50에서 재인용

의 배포를 중단하고 있기도 하다. TV 세대인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신문을 덜 읽으며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가사용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또한 직장일을 하는 아내들은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집에 있을 때 신문을 읽을 시간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2. 신문내용의 변화와 독자

대도시에서의 신문발행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배포와 구독은 대체로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다. 이제 문제는 21세기에 어떤 종류의 신문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대답은 신문의 경제적 기반과 편집, 출판자들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미 편집자들의 인식은 신문의 스타일이나 성격에 있어서 빠른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개 TV뉴스가 신문으로부터 독자를 빼앗아가고 있다지만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아직도 신문이 우위를 지키고 있다. 70년대이래 많은 편집자들은 TV의 영상적, 오락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Personality Journalism'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인물기사와 사진들을 실었다.

〈표 1〉 신문의 전형적인 편집내용

스포츠 16%	
사업/재정 8%	그외의 것들(3% 미만)
범죄 8%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일반적인 지방뉴스 8%	TV/radio 방영일정표
국제뉴스 6%	뉴스 요약
주 정부와 지방정부 4%	종교
미국정부의 일상뉴스 3%	여행
교육 3%	날씨
연재만화 3%	과학
사고 2%	문화 행사
유행/사회 2%	기타
칼럼 1%	
음식/가정/원예 1%	
65%	35%

* 자료 : Morton Research, the Newspaper Advertising Bureau
* Leo Bogart, "Newpapers in Transition" *American Media* Chap. 4 p.50에서 재인용

10만부 이하를 발행하는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뉴스나 Time, Newsweek, Wall Street Journal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방뉴스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전체 편집자의 3/5 가량이 1977년에서 79년 사이의 가장 주요한 변화로 '뉴스의 지방화'를 꼽고 있다. 대도시 신문의 경우도 도심지역내의 특별한 영역화를 꾀했는데 이것이 도시외곽지역의 신문들과 경쟁하는데 좋은 효과를 냈던 것같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향은 신문 구독자들의 요구와 어긋나고 있다. 미국인들은 교육수준이 점차 높아져 가고,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동성이 뛰어나서 점차 그들의 주거지역과는 결합력이 약해지고 있다. 더구나 대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다. 즉 일하는 장소와 가정이 수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뉴스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미국인들은 이제 국가적인 문제나 국제적인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러한 정보를 빨리 얻기를 원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인물기사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문화나 여성관련 쟁점(유행, 음식, 예절 등)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신문은 소비적인 잡지를 닮아갔다고 할 수 있다. 편집자들은 항상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나쁜 뉴스'를 가볍게 하기 위해 피쳐물들의 '좋은 뉴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독자들은 신문에서 정보보다 오락을 원하는 것일까? 1977년에 전국적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59%에 해당하는

상당수가 신문이 오락물이나 뉴스요약을 제공하는 것보다 뉴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인들이 신문이, 그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은 신문기사를 '재미있고',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인식하는데, 1977년의 연구에 따르면 절반가량이 스포츠 기사를 매우 재미있지만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전형적인 오락물에 대해서 매우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전형적인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 매우 재미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1%에 달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70년대에 편집자들은 구독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신문은 이제까지 별 변화없이 성장해 왔으며, 중소도시의 일간신문들은 별다른 경쟁없이 높은 구독률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대도시 일간지의 경우에도 광고의 증가에 힘입어 1970년에 평균 19.8 페이지이던 것이 1986년에는 32.4 페이지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의 증가는 부차적이고 장식적인 기사도 증가시켰지만 'hard' 뉴스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뉴스를 더 많이 제공하게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문 내용의 비율은 계속 달라져 가고 있으며 신문의 성격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미국국민들의 미디어 접촉실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인 63%가 적어도 매일 신문의 어느 부분이라도 보고 있으며 모든 성인의 13%가 하루에 2가지 이상의 신문을 보고 있다.

둘째, 미국 성인의 3분의 1만이 이른 저녁의 네트워크 뉴스를 보며, 심야의 지방 TV

〈표 2〉 성인들이 보고 읽는 것
뉴스, 정보원, TV의 진지한 프로그램

매일		매주	
63.0 %	일간신문	24 %	TV 가이드
2.8	USA 투데이	22	리더스 다이제스트
2.4	월스트리트 저널	14	타임
1.7	뉴욕 타임즈	10	뉴스위크
35.0 %	Early Evening Local	19 %	60 Minutes(CBS)
29.0	Late Local TV News	10	20/20(CBS)
27.0	Network Evening News	9	National Geographic Specials(PBS)
9.0	Morning TV News	6	Nature(PBS)
2.0	MacNeil/Lehrer Newshour	6	This Week with David Brinkley(ABC)
6	CBS Sunday Morning	5	Nova (PBS)4 Face the Nation(CBS)
		3	Masterpiece Theater(PBS)
		3	Meet the Press(NBC)
		3	Mystery!(PBS)

* 자료: Simmons Study of Media & Markets, 1986. PBS의 경우는 가정 시청률을 표시한 것이다. 매주의 프라임 타임외에서 재방영된 몇몇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스요약은 거의 보지 않는다.

셋째, 일간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3개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이른 저녁의 지방 뉴스 쇼, 네트워크의 저녁 뉴스 쇼, 심야의 지방뉴스 요약)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뉴스를 본다.

넷째, 미국 성인의 약 30%가 Time, Newsweek, U.S. News & World Report를 읽으며, 전 미국 성인의 5분의 1 이상이 Reader's Digest를 읽는다.

3. 텔레비전의 보급과 프로그램 내용의 변화

TV는 제2차 시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이래로 라디오의 청취자들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였다(〈표 3〉 참조).

1946년 TV 수상기가 처음 등장한 2년이내에 ABC, CBS, NBC, 그리고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DuMont이라는 4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1952년까지는 108개의 방송국이 가동되었다. 점차 라디오 방송을 TV가 대체하면서 TV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표 3〉 TV 보유가구

TV 보유가구수 (백만)		TV 보유가구 (백분율 %)	칼라TV 보유가구 (%)	2개이상의 TV보유가구 (%)
1950	4.6	9	–	–
1960	45	87	–	–
1970	60	95	41	12
1980	78	98	85	35
1985	86	98	93	51
1986	86	98	95	59

* 자료: Television 1987 Nielson Report, A.C.Nielson Company.

** Lawrence W.Lichty, " Television in America: Success Story" *American Media* Chap.13 p.164 에서 재인용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1960년대초 절반 가량이 4개 이하의 시청가능 채널을 가졌었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 4분의 3가량의 미국가정이 10개 이상의 시청가능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5가구중 한 가구는 30개 이상의 시청가능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청가능한 채널의 증가가 곧바로 프로그램 내용과 주어지는 정보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표 5〉 에서 보듯 TV와 케이블, VCR의 보급

〈표 4〉 시청가능 채널수

시청가능 채널 수	미국 가정당 백분율 (%)		
	1964	1972	1985년도
1 - 4	41	17	3
5 - 10	51	52	22
11 - 29	8	31	56
30 이상	–	–	19

* 자료: Television 1987 Nielson Report, A.C.Nielson Company.

** Lawrence W.Lichty , "Television in America: Success Story" *American Media* Chap.13 p.164 에서 재인용

〈표 5〉 1987년도의 미국 가정의 TV 시청현황(백분율 %)

28	TV 만 보유
23	TV + VCR
12	TV + Basic Cable
10	TV + VCR + Basic Cable
9	TV + Basic Cable + Pay Cable
18	TV + VCR + Basic Cable + Pay Cable

* 자료: Cable and pay cable(1987년 11월) from Channels, 1988년 1월, VCR, 1987년 5월, Nielson press release: A.C.Nielson Company.

** Lawrence W.Lichty, "Television in America: Success Story" *American Media* Chap.13 p.164 에서 재인용

상황을 보면 87년 한해를 볼 때 텔레비젼과 케이블, VCR 모두를 소유한 가구가 37 %에 달하고 있어 미국은 이제 사실상 영상매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표 6〉은 상위 10개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과 1986-87 시즌과 1987-88 시즌의 정보 프로그램 3개를 비교하였다. 시청율은 TV를 보고 있는 가정의 백분율이고, 점유율은 그 프로그램을 보느라 TV를 시청하는 가정수의 백분율이다. 그리고 1987년에 비해 1988년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일면 독립 station이나 케이블 TV, 비디오 카세트 대여 등에 의해 프로그램 경쟁이 보다 치열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1986년에 TV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연초에 Capital Cities라는 소규모 방송국의 소유자가 ABC를 인수했고, 5월에는 General Electric사가 RCA를 매입함으로써 NBC를 인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Laurence Tisch와 그가 소유한 Lowes Corporation은 CBS의 운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표 6〉 오락 vs. 정보

1987			1988		
순위	시청율	점유율	순위	시청율	점유율
1 Cosby show	34.9	53	1 Cosby Show	44	27.8
2 Family Ties	33.4	50	2 Different World	39	25.0
3 Cheers	27.5	41	3 Cheers	37	23.4
4 Murder She Wrote	25.4	37	4 Golden Girls	37	21.8
5 Golden Girls	24.5	41	5 Growing Pains	33	21.3
6 60 Minutes	23.3	37	6 Who's The Boss	33	21.2
7 Night Court	23.2	35	7 Night Court	34	20.8
8 Growing Pains	22.7	33	8 60 Minutes	30	20.6
9 Moonlighting	22.4	34	9 Murder She Wrote	30	20.2
10 Who's The Boss	22.0	33	10 Wonder Years	23	18.8
50 20/20	14.2	24	57 20/20	15	12.6
82 West 57th	10.9	18	87 48 hours	15	9.5
104 Our World	6.5	10	96 West 57th		7.8

* 자료: Nielson season's series rating, 1986년 9월부터 1987년 4월까지, Variety, 1987년 5월 20일자, p. 42. Nielson rating은 USA Today, Broadcasting magazine과 Variety에 정기적으로 실린다.

** Lawrence W. Lichty, "Television in America: Success Stor" *American Media* Chap.13 p.175 에서 재인용

30년만에 처음으로 NBC는 Bill Cosby Show의 성공에 힘입어 시청율 경쟁에서 1위로 올라섰다. Cosby Show는 높은 시청률과 함께 보기 드물게 장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놀라운 것이다. Cosby는 NBC를 3위에서 1위로 올려 놓았다. 1983년에는 NBC 네트워크의 31개 방송국만이 시장에서 선두를 달렸으나 1985년에는 100개 이상의 방송국을 선두의 자리에 올려 놓았다. Cosby는 다른 쇼에도 영향을 미쳐 Cheers 를 54위에서 3위로, Family Ties를 1985년에 시청률을 48% 증가시켰고 다른 프로그램도 1986년에 34%가량 증가시켰다.

그러나 1980년대에 100개에서 300여개로 늘어난 독립 제작사들과 경쟁을 벌임으로써 네트워크 방송국은 시청자 점유율이 90%에서 67%로 떨어졌다. 〈지불 케이블(Pay Cable)〉과 다른 TV 서비스들이 시청자들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네트워크 TV들은 오락용 가정 비디오 시장에서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혹자들은 점차 오락적 기능을 케이블 TV에 내어줌으로써 네트워크 TV에서 질적인 방송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TV에 빌린 라디오의 경우에서 보듯이 TV도 점차 특수화(specialized)된 양식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어떻든지 〈표 6〉에서 보듯, 코미디와 드라마 등 오락관련 프로그램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10위 안에는 유일하게 60 minutes가 들어있을 뿐이다.

4. 케이블 TV와 시청자

점차 케이블과의 경쟁과 비디오 카세트의 판매, 대여 시스템이 자리잡힘에 따라 TV의 프로그램시장이 변화할 것이다. 케이블 TV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비디오 시그날을 전송하고 있는데 1987년에는 약 7800개의 케이블 시스템이 미국의 2만여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700여개의 프랜차이즈가 성장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시청가능 채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케이블 시스템의 2/3가량이 12채널 이하였는데 이제는 거의 절반 이상의 케이블이 30개 이상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표 7〉 케이블 TV 가입가구수와 프라임 타임대의 시청가구수

	가입가구수	프라임타임대의 시청가구수
ESPN / Sports	41,000,000	571,000
WTBS / Super station	40,204,000	1,401,000
CNN / News	38,456,000	607,000
USA / Entertainment	37,000,000	699,000
CBN / Religion	34,086,000	245,000
MTV / Music	33,400,000	256,000
Lifetime / Women, health	30,600,000	139,000
Nashville / Country	26,600,000	438,000

* 자료: 1987년 5월 4일자 Cablevision magazine 에서 보고된 가입자 수.
1988년 7월 11일자 Broadcasting에 보고된, A.C.Nielson의 1988년 2사분기의 프라임타임 시청가구수.

** Stuart N.Brotman, "The New Era" *American Media* Chap.17 p.221에서 재인용

1980년과 1987년 사이에 케이블 가입자들이 지불한 구독료의 총액은 2억 9천 달러에서 11억 8천 달러에 달한다(Cable Television Advertising Bureau). 한달에 10달러에서 15달러 가량의 요금을 지불하고 가입자들은 기본 케이블 방송-네트워크 방송을 비롯하여 지방 방송과 위성방송, 일기예보 방송, 뉴스 방송, 스포츠 방송, 종교 방송 등을 볼 수 있으며 지불 케이블을 포함하더라도 가입자는 매달 25달러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대다수의 가정은 기본 케이블 이외에도 한개 이상의 지불 케이블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케이블들은 상업방송에서 허용되지 못하는 영화나 오락물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불 케이블의 가입자들은 1980년과 1987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해서 거의 2천6백만에 도달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의 유일한 공영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방송의 시청현황을 보기로 하자.

〈표 8〉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PBS 의 일간 프로그램

		누적	
	가정의 평균 시청률	일간	주간
Mr.Rogers' Neighborhood	2.1 %	2.5 %	6.9 %
Sesame Street	3.0	4.9	12.1
Reading Rainbow	1.9	2.3	6.9
3·2 1 Contact	.9	1.2	3.4
MacNeil/Lehrer Newshour	1.9	3.3	8.4

* 자료: *A.C.Neilson, PBS Research.*

** Stuart Alan Shorenstein & Lorna Veraldi, "Does Public Television have A Future?" *American Media* Chap.18 p.237에서 재인용

〈표 8〉에서 프로그램을 보는 누적적인 시청가구수(전체 백분율)는 평균 시청률보다 더 높은데, 이것은 어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만 보기도 하고 하루에도 여러번 TV를 보거나 혹은 일주일중 하루 이틀만 TV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때문이다.

비교해본다면, 9백 7십만의 성인이 매주 MacNeil/Lehrer Newshour 의 어느 부분이라도 보고 있으며 6백만의 청자들이 Morning Edition 의 일부분을 듣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위치는 상업방송의 3대 네트워크나 케이블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육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프로들이 어느 정도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사회의 변화와 언론시장의 변화를 보면 인쇄매체와 전파매체의 내용이 모두 언론기업의 이윤확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영상매체의 확대와 오락화 경향은 미국 언론의 가장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Ⅳ.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성립과 사회적 성격

미국에서 신보수주의의 대두와 발전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분명 낯선 영역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추상적인 수준의 연구가 우리의 시각을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논리가 대중적인 호흡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분석 자체는 많은 장애에 봉착하고 만다. 그 장애란 다름 아닌 '이데올로기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운동과정에 대한 생생한 인식의 결여'이다.

이런 논리적인 교착상황에서 연구자들은 각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때로는 지나치

게 단순하게 평가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및 영국의 대처리즘에 대한 좌파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예외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여러 연구에서 보이는 사회주의 혁명에 지나치게 경도된 목적론적 시각은 신보수주의를 사멸해가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변종으로 치부해 버린다. 유럽의 좌파이론은 신보수주의를 부르조아의 이데올로기적 층위에서의 승리라는 평가와 그것에 대한 비판으로 물질적(경제적)토대의 변화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이론으로 대별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논의가 서로 지적하다시피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결여된 것은 그 논리구조 안에서 질식당하고 있는 역동적인 운동과정이 지나치게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서도 밝혔듯이 이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 운동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저널리즘의 역할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의 대중적 동의의 획득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신보수주의의 성립과정을 포함한 그것의 주요한 특성에 대한 몇가지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다.

첫째, 신보수주의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뉘어지는 이른바 아메리카니즘의 전통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둘째, 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위대한 미국'에 대한 신념을 제고하게 만들었던 70년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무엇이며,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신보수주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째, 그들이 미국의 권력집단 및 일반대중들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었는가?

1. 아메리카니즘의 전통과 신보수주의

미국에서 보수주의란 개념은 항상 논쟁적이었으며 역동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마치 베일 속에 숨은 메두사의 머리처럼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메두사를 잡기 위해, 즉 미국 보수주의의 명확한 개념규정을 위해 스스로 페르세우스가 되고자했던 많은 논자들은 괴물을 잡을 수 있는 '몸이 안 보이게 하는 모자'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논쟁을 겪어야 했다. David Allen은 이러한 논쟁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 범주의 접근방법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른바 Burke적 보수주의 개념규정 방식인 '상식적 접근'에서는 보수주의를 "기존의 가치나 제도를 보존하고 기득권집단(status quo)의 방어를 담당하는 이데올로기"로 파악한다. 만하임(Carl Manheim)등에 의해 주장되는 '사회역사적 접근'에서는 "사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주로 이러한 사상의 형태를 운반하는 사회집단과 계급의 운명에서 찾아지는 것" 이라는 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주의를 "사회, 역사적 배경의 변화 특히 계급관계의 변화와 관련한 지배계급의 사상"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Arthur O. Lovejoy학파에 의해 주장되는 '단위사상적 접근'에서는 "다소 정

치, 사회적 문맥과 관계없이 여러 세대에 걸친 고립된 핵심사상을 추적하는 것" 즉,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를 통해 보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적 방법'에서는 이러한 제 관점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논쟁의 성과는 아직까지도 어떤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미국 보수주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2]

(1) 미국 보수주의의 특수성

이제 좀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결해 보자.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아메리카니즘에 내재하는 미국의 보수이념을 파악하는 핵심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미국 보수주의의 특징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는가?

우선 미국 보수주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미국에서 이념적, 역사적으로 특수한 맥락을 전제해야 한다. 첫째, 로크식의 자유주의 이념(Lockean liberalism)의 미국적 실현과정이다.

> 물론 미국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계급의 차이도 있었음에 틀림없으나 유럽의 국가들처럼 이러한 계급의 차이가 고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광활한 토지와 경제적 기회로 인하여 미국에서의 계급의 벽은 성벽같이 견고하고 높은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유동적인 것이었다(최 웅, 김 봉중, 1992:57).

이것은 자유주의가 싸워야 할 아무런 봉건귀족도 고착된 계급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에서의 자유주의 이념 실현의 특수한 조건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에서의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서 미국인이 옹호해야 할 에토스요, 윤리의식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자유주의를 보수주의와 항상 대립적인 정치이념으로 이해하는데 익숙해진 독자들에게는 당황스럽겠지만 이와 같은 '자유주의 안에 내재하는 보수성'이라는 특수성은 셸던 월린(Scheldon Wolin)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 우리는 자유주의를 특권의 성벽을 부수기 위해 무장된 투쟁적 신념으로 묘사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전통주의를 공격하는 만큼 급진적 민주주의에 대한 방어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역시 자유주의는 혁명 이후에는 (자유주의 이념을 옹호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Scheldon Wolin, 1960; Steinfels, 1980에서 재인용).

2 이글의 목적이 이러한 규정의 철학적 기초를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간단히 처리한다. 자세한 것은 David Allen(1986) 참조.

둘째, 1620년 메이플라워호가 케이프 카드(Cape cod)에 도착한 이래 미국인의 혈관속에 흐르는 캘비니즘의 전통이다. 즉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미지의 신대륙에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들의 꿈이 미국의 보수주의의 기본적인 성격으로서 우월의식, 도덕적 신념 등을 포함한다.

> 이 신천지에 '언덕 위에 도성'을 구축해야 하며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하고픈 그들의 사명의식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미국인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잡아갔다. 이러한 선교적 사명감은 그후 미국혁명을 거쳐 미국 헌법과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 때 뿐아니라 다른 나라와 외교할 때나 19세기 말부터 전개되는 미국의 팽창주의 정책에서도 주요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다[3] (최웅, 김봉중 1992: 127).

캘비니즘의 우월의식과 선민사상 그리고 메시아적 소명의식은 전세계적인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정당화했으며, 미국의 가치에 위배되는 모든 이념들, 특히 공산주의를 포함한 급진주의적인 민주주의 사상의 제조류에 대하여 '마녀사냥'과 같은 종교적 차원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즉 이와 같은 캘비니즘에 기초한 팽창주의, 반공주의, 도덕적 이상주의는 역사적으로 미국 정치이념에서 보수적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범주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의 이념적 조건과 함께 미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냉전질서의 형성이라는 복합적 관계 안에서 미국의 전통적 보수주의는 Burke 의 주장대로 '현존상태에 대한 급진주의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특수성이 생략된 보수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성격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자유방임주의적 자유관과 평등관이다.

> 미국의 공화주의적 평등관, 즉 "終點이 아닌 起點의 평등"(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자유의 필연적 결과라는 관념)이라는 관념과 자유주의적 경쟁관 그리고 자유주의의 만 국가권력적 윤리의식이 교직(interweave)되어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와 사회진화론적 사상이 미국적 보수주의의 색채를 확연히 규정짓게 된다.(권용립, 1991: 178)

앞으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다니엘 벨(Daniel Bell),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 다니엘 모이니한(Daniel Moynihan) 등 현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등관은 이러한 미국적 보수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이러한 평등관은 사회적 교육이나 각종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으로 억제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둘째, 급진적 개혁에 대한 공화주의적 '회귀'의식이다. 권용립은 미국적 보수주의의 성

3 한편, 캘비니즘의 미국적 전개의 특성을 권용립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즉 캘비니즘 특유의 우월의식과 메시아적 소명의식은 미국인들의 정치생활에서 대외적 팽창주의와 국제적 간섭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권용립, 1991 참조).

격을 규정하는 세 가지의 주요한 측면으로 자유주의적 합의이론(consensus theory)과 공화주의적 전통 그리고 캘비니즘을 들고 있는데 특히 뒤의 두가지 측면의 결합을 '우월'과 '회귀'의 상호작용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우월'의 사상은 위대한 미국이라는 전통적 권위에 대한 옹호를 표시하며, 그러므로 보수주의 사상의 핵심으로 '미국적 가치의 수호'를 도출하며, '회귀'는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미국인 전체의 우월의식에 대한 제고, 즉 원초적 이념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이러한 회귀적 본능은 미국이 내부위기를 겪는 순간마다 항상 존재해 왔는데 신보수주의의 60년대 뉴레프트(new left) 운동 당시 '권위의 위기', '정통성의 위기'에 대한 광범한 문제제기는 보수적 운동으로서 신보수주의의 성격을 말해 주는 주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세째, 미국적 민족주의인 반공주의적 애국주의의 종교적 승화이다. 미국에서의 애국주의란 물론 시대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의 애국주의는 영국이라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미국적 이상의 수호였고, 20세기에 나타나는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반공주의적 애국주의'였다. 그러나 미국적 애국주의의 기본 성격을 살펴보면 각각의 역사적 시기의 애국주의의 특수한 성격을 일관하는 '미국식 민족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식 민족주의는 청교도적 소명의식과 관계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이상을 실현해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외부적 장애에 대한 '종교적 성전'의 수행으로 나아간다. 매카시즘의 종교적 광기가 그 좋은 예이고, 레이건이 소련을 종교적 의미에서 '악마의 제국'(evil empire)라고 공격하는 것은 당시의 신보수주의자들의 보수적 반공관과 일맥상통한다.

이 밖에도 미국적 보수주의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들로 대외적 팽창주의와 반지성주의로서의 반엘리트주의 등을 들 수 있다.[4]

(2) 신보수주의의 성립배경과 그들의 미국사회 진단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미국 보수주의의 일반적 성격은 미국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등장하곤 하는데 60년대와 70년대를 걸친 위기의 상황에서 신보수주의라는 정치적 운동이 재등장하게 된 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될 수 없었다.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반전운동, 인종대립의 확산, 대항문화의 형성 등 사회적 위기와 장기화된 경제불황 그리고 고도로 비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대중적 회의의 상황은 학생운동과 급진주의적 반정부운동에서부터 사회주의적 형태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4 여기서 반엘리트주의는 정권이나 금권을 "현재"잡고 있는 인물들이 새로이 대두하여 자신의 기존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신흥세력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지 엘리트가 아닌 일반 민중에 가치를 두는 '민주적 평등관'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로 지식인 집단으로 출발한 신보수주의자들이 보수주의와 광범한 연대를 맺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출신배경이 문제시 되기도 한다. 권용립(1991)과 Paul Piccone(1987-88) 참고.[4233]

전망을 모색해 보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급진적 시각은 아직까지도 미국인 절대 다수에게 호소력이 있게 작용하지는 못했다. 위기는 새로운 이념에 대하여 광대한 활동의 공간을 제공했지만 미국인은 자극받지 않았다.

이제 다시 한번 미국적 보수주의가 대반격을 시작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ENCOUNTER 誌에 실리게 되었다. 다니엘 벨이 『불안정한 미국』(Unstable America)이라는 글을 썼다. 그는 뉴딜 이후 60년대 초반까지 성장을 구가하면서 대부분의 유럽제국에 비해 불황, 전쟁, 그리고 좌파의 도전이라는 국면에서 상대적인 안정을 구가했던 미국을 상기시키며 미국인들이 '권위의 회복'과 '안정'을 찾기 위해 가져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것은 위기의 상황에 항상 그러했듯이 미국인들의 우월의식을 자극하였으며 우울한 미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느끼게 했다. 미국인들이 항상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듯이 미국인은 건국 선조들의 이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희망에 부풀곤 한다.

벨 이외에 다른 논객들이 이런 보수성을 자극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미국의 위기상황을 진단한다(Steinfels, 1980: 53 - 63).

① 권위의 위기(the crisis of authority)가 미국과 서구에 만연해 있다. 지배제도는 그것의 정통성을 상실했다. 지배엘리트의 자신감은 약화 되었고, 사회안정과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유산은 위협을 받고 있다.

② "권위의 위기", "정통성의 위기"는 주로 문화적 위기(cultural crisis)이며 가치, 도덕, 전통적인 예절의 문제이다. 문제는 신념이 침체되고 도덕이 느슨하며 예절이 타락하는 것에 있다.

③ 정부는 "과부하"(overload)의 희생물이다. 너무 많은 것에 대한 개입은 자연스럽게 실패를 야기하게 했고 그러므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손상시킨다.

위에서 말하는 '권위의 위기', '정통성의 위기', '문화적 위기' ,'가치와 도덕의 침체' 그리고 '정부의 과부하상태' 등의 진단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미국 보수주의의 일반적 성격으로서의 '근본주의적 이념', '과대정부의 지양', '우월주의로의 회귀성향' 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정치 스펙트럼 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해주고 있다. 이러한 위치는 그들의 가치지향에서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다.

2. 신보수주의의 가치지향

(1) 우리는 충실하게 남아있다(We Remained Faithful).

신보수주의의 입장을 종합할 수 있는 첫번째 주장은 신보수주의자들 자신의 '우리는 충실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60년대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흑인 인권운동의 활성화 등으로 빚어진 혼란한 사회상황이 이전의 자유주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급진적인 성격으로 변질시켜 놓았으며, 정치적 스펙트럼을 전반적으

로 좌파적으로 이동시켰을 때 자신들은 이전의 원칙에 그저 충실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즉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뉴 레프트 시기에 혼란에 빠진 자유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념은 전통적인 미국보수주의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며, 특히 미국에서 좌파계열의 입지가 급격히 쇠퇴하는 80년 대에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모든 형태의 좌파 이론과의 전투에서 최선봉에 서고 있었다.

이것은 "이런 정치스펙트럼에서 신보수주의는 우파의 입장인가? 나는 그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우리는 '신자유주의자'가 될 것이다"(Steinfels, 1980, p.273) 라는 크리스톨(Kristol)의 주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한다. 그의 주장은 자유주의라는 말이 풍기는 뉘앙스, 즉 자유주의를 미국적 사상 안에서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통로로서 이해하는 미국인 일반의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본래 가장 주장하고 싶었던 미국적 자유주의 내부의 보수적 원칙을 "자유주의 원칙에 대한 충실"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의 눈에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여전히 자유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비춰졌다.

(2)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자유주의 경제체제 옹호

신보수주의자들은 60년대 이후 강화된 급진주의적 세력을 이전의 냉전시대와 같은 대립구조안에서 통합시키려 한다. 즉 이들은 반전운동과 '제국주의자'라는 오명으로부터 이전에 미국이 지녔던 권위를 되찾으려 한다. 한편 공산주의에 대한 이들의 혐오는 역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강력한 수호라는 신보수주의 진영내부에서 통용되는 영원한 목적의식을 더욱 강화한다.

(3) 'New Class' 포섭을 위한 전략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정책 전문가의 이데올로기로서 가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그것이 이른바 New Class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60년대 이후 새로운 성격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이전의 계급관계나 사회적 구조에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진 집단이었다. 신계급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과 과장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집단이었다.

첫째, 그들은 두가지 상이한 원천으로부터 그들의 힘을 가져온다. 하나는 "전문성", 즉 기술적 지식과 극히 선진적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지위", 즉 그들의 활동무대인 뉴 클래스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복잡한 기구에서 차지하는 지위이다.

둘째, 그들은 높은 교육과 이를 통해 획득한 사회적 신임을 바탕으로 그들의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신계급의 구성원들은 이전의 사회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급적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는 그들의 능력이 때로는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때로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보수주의자들에게 New Class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또다른 이유가 된다. 고등교육을 통한 훈련을 받았고, 때때로 전통적인 종교, 윤리관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육체노동과 집단적인 노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New Class는 그들의 정통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민감해 있다. 더우기 New Class는 사회적인 기본가치들이 결정되는 준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이슈에 대해 합의된 지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들은 때로는 비판적이며 때로는 강력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많은 경우 이들 집단은 그들만의 확립된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New Class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정치활동의 토대가 되며 동시에 그들을 이끌어갈 일관된 원칙으로써의 이데올로기였다. 신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부유하는 New Class를 그들의 "체제"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 신보수주의적인 정책전문가는 단순한 기술자(*technician*)가 아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노골적이었다. 모이니헌은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항해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지적이고 전투적인 사회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도 같은 종류의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크리스톨은 경제지도자들에게 "(경제)사상의 전쟁"(war of ideas)에서 시장경제 옹호 세력을 이끌어갈 New Class를 고용할 필요에 대해 충고하고 있다(Steinfels, 1990: 290)

3. 권력 및 대중들과의 연결통로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신보수주의자들의 보수적 이념이 현실적 힘으로 재구성 되는 과정, 즉 그들의 영향력이 미국의 지성계, 정치계, 경제계 그리고 각종의 사회집단 및 개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자.[5]

(1) 신보수주의 형성기의 저널과 연구소

"지식인 세계의 지리학은 저널에서의 지리학이다." 그러므로 지식인 세계에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활동해온 저널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초기에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요한 활동공간이 된 저널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COMMENTARY* 誌이다. 이것은 미국 유태인 위원회(AJC)에서 월간으로 발행

5 이점에 대해서는 Nash, 1976; Piccone, 1987-8; Fergson & Rogers,1986; Bell, 1990을 참조

했는데 정치와 문화의 문제를 심도깊게 다루는 모든 잡지들 중에서 어떠한 잡지들보다도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 잡지의 지면을 통해 신보수주의자들은 *The New York Review of Books*의 여러 필자들과 논쟁을 벌였으며, 이 논쟁의 과정을 통해 초기 신보수주의 그룹을 형성한다. 이러한 논쟁 중에는 대표적으로 노먼 포드호레쯔(Norman Podhoretz)와 조셉 앱슈타인(Jason Epstein) 사이의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언론들은 이 논쟁을 그저 '예전에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의 사소한 논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의 연합이 구축되어 가고 있었다. Moynihan은 Podhoretz를 옹호하고 나섰으며, 그가 *The United Nations*의 주필이 되자 그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로 나섰다.

둘째, *The PUBLIC INTEREST*를 들 수 있다. 이 잡지는 *COMMENTARY* 보다는 다소 뒤에 나온 것으로 현실을 다룬 사회과학적 논의에 대한 분석을 지향하고 있었다.

다니엘 벨(Daniel Bell),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 네이던 글레이저(Nathan Glazer), 제임스 윌슨(James Wilson), 세이무어 립셋(S .M. Lipset), 다니엘 모이니한(Daniel Moynihan) 등은 이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그들은 이 잡지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더욱 공고화해 나갔다.

(2) 각종의 연구소및 권력과의 연결

신보수주의자들은 우선 각 대학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다. 예를들어 Harvard, Berkeley, MIT, Chicago, Stanford 대학 등은 그들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의 연구소로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를 들 수 있다. 원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우익의 연구소인 AEI는 60년대 까지는 이렇다할 영향력이 없었으나 신보수주의자들이 들어온 이후, 이 연구소는 미국의 다양한 학문 공동체들의 정책논쟁의 무게중심을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았다. 예를 들어 James Wilson과 Robert Lipset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Friedmann이나 Mckracken 등과 함께 AEI의 연구지원위원회에서 함께 재휴하였으며, Kristol은 AEI의 전임 연구자가 되었고, Edward Banfield와 Martin Lipset 등은 AEI의 각종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미국에서 학문공동체들 사이의 논쟁이 완전히 보수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신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 자유주의자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는 집단으로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만과 립셋의 타협지점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타협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러한 신보수주의자가 주도하는 보수주의의 광범한 연결이 미국의 정치스펙트럼의 중심점을 전반적으로 '오른쪽'(보수적)으로 이동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신보수주의자들은 각종 기업의 연구소 및 정부 연구소에도 대거 진출한다. 예를 들어 록펠러 재단은 크리스톨과 위버에게 "미국의 제도안에 내재하는 인간본성의 사상과 가치"를 분석하는 논문의 댓가로 $100,000을 제공한다. 또 "new class"에 대해 그

들의 생각을 정리한 30여 페이지 분량의 논문에 대해 $4,000를 제공한다(Steinfels, 1980: 13). 또한 미국의 거대 군산 복합체 소속의 각종 연구소들이 이들에게 연구비용을 제공하며, 각종의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위탁한다. 당연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이들 연구소가 신보수주의자들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답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 기업 및 정치권력과의 연결

한편 신보수주의 지식인들은 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계도 강화해간다. 신보수주의자와 거대기업 사이의 결합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포춘에 대한 Kristol의 주장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기업의 자유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이미 기업의 각종 연구소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미국인들도 지속적인 경제불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의 견해에서 찾고자 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이전에 거대기업이 옹호하던 경제이념과는 다르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자유주의 인텔리겐챠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은 거대기업들로 하여금 신보수주의와의 연계의 끈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오랜 법칙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이들과 정치권력의 연계는 더욱 간단하며 노골적이었다. 정치가들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지성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이들의 명성을 그들의 입지강화를 위해 필요로 했고,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들이 하는 활동 또한 다양했다. 이들은 정치후보들의 연설문 작성에도 참가했으며, 선거 캠페인 기간에는 TV좌담 등을 통해 그들의 견해로서 후보를 옹호하기도 했다. 정치집단과의 이러한 연결을 통하여 신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과 실질적인 타협을 하고 결합[6]할

6 Piccone의 분류에 따르면 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보수주의는 크게 네가지의 분파로 나뉘어 있었다. 뉴딜(New Deal) 정책 이후에 富를 축적해 왔고 그러므로 *status quo*를 방어하는데 가장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그러나 그들은 대중적인 반감을 사고 있었다) Old Conservatives, 경영적 수완과 교류적 기술 그리고 행정적 배경을 가진 New Conservatives, 지적으로는 뒤떨어 지고 독선적이며 반공주의에 충실한 동부의 완고한 노동자집단(Archi Bunkers)과 중서부와 서부의 벼락부자들의 집단인 Populist New Right, 그리고 정부통제주의*(statist)*에 대한 극렬한 반대자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미국적 기업가정신의 강력한 옹호자인 Libertarians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상호 갈등적 요소를 많이 포함한 독특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카터 행정부 당시 심각해진 보수주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레이건지지 선거운동을 통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즉 각 분파가 대중적 설득력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각자의 단점보완과 장점의 극대화를 위해 뭉치게 되었다. 구보수주의자들로서는 자신의 반엘리티시즘 자체만으로 집권하기 힘들다는 조건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즉 구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항상 기득권을 위협하는

수 있었으며, 사회세력화되어 레이건 정권의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4. 소 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주로 파헤치고자 했던 것은 미국 보수주의의 특수성과 이러한 정치지형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혀보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자유주의에 내재하는 보수성의 원칙을 가장 탁월하게 지켜낸 지식인들이었다. 그러나 미국인 일반이 바라보는 신보수주의자와 미국적 보수주의를 수호하려는 신보수주의자들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한다.

요컨대, 신보수주의자들의 보수성은 보수주의 그 자체로써 대중들에게 비쳐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이 상정하는 정치적 견해의 대립축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긴장관계에서 그들이 대부분 예전에 자유주의자의 핵심인물들이었다는 점이 미국인들에게는 부각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보수주의의 핵심인물들과 신보수주의자들 사이의 타협지점은 실제로는 미국역사에서 가장 보수적인 타협이 되었지만 대중들에게는 그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타협으로 보였고, 이러한 인식이 80년대 미국의 정치질서를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보수적으로 기울게(right turn)'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신보수주의자들의 대중적 동의의 획득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V. 신보수주의 헤게모니 과정 안에서 언론의 위치와 역할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보수주의는 70년대 이후 쇠퇴하는 미국경제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배블럭의 이념동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를 떠받치는 사회세력은 대공황 이후 미국사회를 이끌어 왔다. 뉴딜연합을 깨고, 전통적 보수진영과 자유주의진영이 새로이 부상하는 '신계급'을 포섭함으로써 정치적 기득권의 유지와 안정을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신보수주의가 행정관료, 기업, 지식인, 신계급을 중심으로 유포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지배연합이 대중부분의 지지를 획득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절에서는 신보수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면서 특히 언론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신엘리트들을 경계해 왔지만, 70년대의 사회적 위기상황은 똑같은 이유로 신보수주의자들이라는 엘리트집단의 힘을 필요로 하였다. 구보수주의자에다가 New Right의 인적자원과 자본, 그리고 Libertarians의 미국대중에 대한 철학적 호소력이 합해짐으로써 레이건은 백악관 입성에 성공한다. 각 분파는 동맹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론 신보수주의자는 가장 중요한 힘으로 작동한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Piccone(1987 - 88) 참고.

1. 미국의 대중들은 신보수주의 정책을 지지하는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성립된 신보수주의와 레이건의 연임을 두고 많은 미국 언론들은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보수화(right turn)하고 있는 계기라는 보도와 해설을 내보냈다.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신보수주의 지식인들이 자주 기고하는 저널·미국사회를 진단하는 각종 연구소들의 보고서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이러한 진단에 동의하면서 60년대의 정치적 혼란기를 통해 성장한 소수민족·여성·환경운동 등의 민주당 지지세력은 이제 쇠퇴하고 있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언론과 지식인집단의 진단에도,불구하고 미국의 대중들은 실질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개입과 정부지출의 확대라는 뉴딜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제출되었다. 70년대 이후 미국대중들은 보수화했는가의 문제를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우선 검토해 보자.

〈표 9〉부터 〈표 12〉까지에서 보는 것처럼 1968년부터 78년까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43%에서 35%로 감소한 반면 자유주의자는 22%와 21%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소속정당 역시 공화당이 68년 29%에서 78년 23%로 감소하고 민주당 지지자는 41%에서 46%로 오히려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표 12〉에서 보듯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에서도 미국의 대중들은 "기업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주장에 대해 70년대 후반에 올수록 압도적인 지

〈표 9〉 귀하의 정치적 입장은?

	자유주의적	보수적	중간적
1968	22%	43%	36%
1972	26	35	38
1976	23	36	41
1978	21	35	45

자료: Haris Polls(1978), Palez & Entman(1981)에서 재인용

〈표 10〉 소속정당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1968	41%	29%	29%
1972	43	26	31
1976	46	22	32
1978	46	23	29

자료: Gallup & Haris Polls, Paletz & Entmann(1981)에서 재인용

〈표 11〉 다음문제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무응답
노동자 보건산업안전	52%	12%	36%
기회보장	42	21	37
환경보호	42	19	39

자료: ORC(Opinion Research Corporation) Polls, Paletz & Entmann(1981)에서 재인용

〈표 12〉 경제에 대해

① 정부가 기업이윤을 제한해야 한다.
②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하다.
③ 사업이 공익을 해친다.

대 답	1968	1972	1975	1977	1979
그렇다	33%(1971)	40%	55%	55%	60%
② 동의한다	48 (1966)	61	76	77	—
③ 동의한다	70	32	15	15	19

자료 : ① ORC polls cited in *Public Opinion* (September/October 1978), p.34, and (June/July 1980), p.33.
② Harris polls cited in *Current Opinion* (Feburary 1973), p.9, and (January 1978), p.6.
③ Yankelovich polls cited in Lipset and Schneider, 1979:9;and *Publlic Opinion* (April/May 1980), p.29, (이상 Palez & Entman 1981, 재인용)

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는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신보수주의세력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동시에 레이건 집권 아래서 시행됐던 환경기준·산업안전기준·최저임금 기준 등의 완화와 같은 탈규제정책과 의료·보건·실업 등에 대한 연방지출의 축소 등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대중부문의 정치적 태도가 신보수주의와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이 1984년 상당한 지지로 재선된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신보수주의가 현재 미국사회의 정치역학 구조 안에서 발휘하는 기능 및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관건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글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신보수주의 성립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는 핵심적 질문이 된다.

사실상 전통적으로 뉴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대중들의 정치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의 재선으로 표현되는 신보수주의 물결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몇가지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테제의 형식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미국경제의 전반적 쇠퇴와 레이거노믹스의 잠정적 성공 테제: 카터의 실패와 레이건의 성공

대중들이 보수화되지 않고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가 줄어 들었으며 레이건이 별달리 대중의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지율로 재선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가 검토한 문헌들에 따르면(Scott, 1988; Danison, 1985; Friedman, 1988 등 참고) 두가지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70년대 이후 나타난 미국보수주의의 성장을 미국경제의 쇠퇴 혹은 침체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시각이 가능하다. 73년 11월부터 75년 3월까지 미국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불황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기업들의 이윤은 1965년 약 15년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공장과 설비투자 역시 66-77년 사이 GNP의 4%수준에서 71-75년 3.1%, 그리고 76-80년 사이 2.9%로 떨어진다. GNP성장에서도 60-73년 기간에 4.1%가 73-80년기간에 2.3%로 하락한다. 70년대라는 시기는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때와 맞물림으로써 실업율은 65-69년 3.8%, 70-74년 기간 5.4%, 그리고 75-79년 7%로 급증하게 된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치를 보면 50년에서 60년까지 세계 총 GNP안에서 미국의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40%에서 26%로 떨어지고 세계무역에서의 점유율도 20%에서 16%로 감소한다. 70년에는 미국의 세계 총 GNP에 대한 점유율이 23%, 80년에는 21.5%로 떨어지고,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년 14%에서 23%, 80년에는 11%로 하락한다. 미국경제의 불황과 쇠퇴에 대해서 더이상의 목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상의 미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전반적 쇠락의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보수주의의 정책은 미국경제의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사회 지배블럭의 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미국경제의 쇠퇴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서 신보수주의적 정책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70년대의 경제불황은 카터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레이건의 80년, 84년 선거에서의 승리는 〈표 13〉에서 보듯 카터의 경제정책의 실패 그리고 레이건 1차 재임기간동안의 상대적 성공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13〉에서 보듯 선거경제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선거가 있는 해와 전년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변화에서 보듯 카터 행정부는 80년 선거에서 1932년 후버 대통령 이래 처음으로 선거가 있기 직전 유권자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불운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동시에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과 81년 불황을 겪었으나 집권 후반기의 가처분 소득을 전년에 비해 5.8% 증대시키는 선거경제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레이건에 대한 재선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사회내에서 신보수주의가 뉴딜연합과 그것에 기초한 국가의 개입 완화, 복지부문 축소 등 '반 뉴딜'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영국의 신보수주의로서 대처리즘은 '케인즈적 복지국가'(Keynsian Welfare State)정책을 영국병의 원인으로

〈표 13〉 선거경제 : 전년도와 비교한 실제 1인당 가처분 소득의 변화율

연 도	% 변화	연 도	% 변화
1932	- 14.2	1964	0.0
1936	11.4	1968	5.6
1940	5.3	1972	3.1
1944	2.2	1976	2.9
1948	3.5	1980	2.6
1952	1.1	1984	- 0.6
1956	2.7		5.8

자료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85 ; Ferguson & Rogers p.34에서 재인용

비판하는 '반 케인즈적' 성격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영국에서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신보수주의 정책이 위기극복에 성공했느냐라고 할 때 많은 경우 대답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

3. 민주당의 신보수주의 선택 테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많은 지식인과 언론들이 미국의 대중들이 '보수화'되고, '우편향'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보수주의 진영은 미국 국민들이 더이상 뉴딜 이후 보편화된 정부의 개입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뉴딜이후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유권자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그들의 부모세대들이 지지하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의료보조의 확대를 더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때문에 대중들은 1980년 레이건을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80년 이후 계속 공화당이 집권하게 됐다는 것이다. 1984년 레이건이 59.2%의 '압도적'지지로 재선되었을때 정치평론가와 많은 언론들이 미국 선거사상 루즈벨트 이래 최대의 승리임을 주장했다.

84년 선거가 끝난 직후 미국 민주당의 후원자 모임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제기된 B. Babitt(아리조나 주지사)와 C. Robb(버지니아 주지사)의 주장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Bruce Babbitt(아리조나 주지사)은 선거 패배 직후 열린 민주당의 유력 후원자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 "거대기업은 큰 노조와 큰 정부의 힘을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는 오래된 민주당의 신념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이다. 미국 경제에 작용하는 탈집중화의 힘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경향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산업정책, 경제정책의 주류를 이루었던 '뉴딜'적인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Ferguson & Rogers, 1986:17에서 재인용)

Charles Robb(버지니아 주지사) 역시 같은 모임에서 "민주당은 이제 말이 너무 많은

정당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한(fairness) 정당이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정당이다. 우리는 근로자의 정당이고 소농등의 정당이고, 도시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이러한 목록은 얼마든지 더 이어질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전히 공정한 정당이기 위해서는)우리는 이제 기업인과 의사와 약사, 주식투자자와 전문인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원들은 군사비 확대지출, 기업지원의 확대, 예산 삭감 등의 정책에 지지를 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민주당은 남부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민주당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Ferguson Thomas & Rogers Joel에서 재인용).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민주당의 오랜 이론가였던 Huntington은 1985년 Public Interest 誌에 (이 글은 본래 미국기업연구소 AEI 의 보고서로 제출된 것이다) "민주당의 시각" 이란 글을 기고한다. 그는 여기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이루었던 '뉴딜연합' (New Deal Coalition)은 더이상 지탱될 수 없으며, 민주당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신흥 중간계층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지기반을 확보해야함을 주장한다. 그는 또 같은 글에서 60년대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성장한 민주당내의 이익집단, 특히 흑인 · 청년 · 여성 · 스페인계 이민 등의 '새로운 정치'집단(New Politics Coalition)이 민주당 내부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을 새로운 정치연합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글이 나가자 〈Christian Science Monitor〉지는 "민주당이 이해집단을 쪼개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곧이어 New York Times는 "민주당 지도자들이 우선 순위를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민주당 내의 '민주당 다수연합'(Coalition for a Democratic Majority)에 의해 보다 온건한 이미지의 정책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지하는 남부와 서부의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들이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에 관심을 가진 분파들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깨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있다는 보도를 한다.

이러한 보수화 분위기를 계기로 민주당 내에도 '민주당 지도자위원회'(Democratic Leadership Coucil)와 '민주당 정책위원회'(Democratic Policy Commission)가 구성되어 보다 보수화된 정책과 대다수 유권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입안을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 언론과 언론인들이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제 뉴딜연합을 종식시켰다는 해설과 함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군비지출과 반공정책,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게 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미국 민주당의 신보수주의 선택이라는 테제는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축이 전통적인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뉴딜연합을 지지하던 자유주의 진영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문화의 정치 테제: 뉴스대중주의

흔히 레이건이 '이미지정치'를 통해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레이건의 '인자한 노인'의 이미지가 지닌 지지도에 대한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크게 높았다고 할 수 없다. 우선 레이건 재임기간 동안 미국유권자들의 레이건에 대한 지지도를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아이젠하워 69%, 케네디 71%, 존슨 52%, 닉슨 56%, 카터 47%로 레이건이 80년 1차 재임기간에 받았던 54%, 2차재임기간의 44%는 오히려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Roderick Kiewiet & D.Rivers, 1985) 또한 Gallup조사에 따르면 레이건이 지닌 '인자한 노인'이라는 이미지 효과는 〈표 14〉에서 보듯이 역대대통령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4〉 레이건과 역대대통령의 'Nice-Guy Effect'

대통령		개인적 지지(1)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2)	Nice-Guy 효과 (1)/(2)
Reagon	1982	60%	41%	1.46
Cater	1980	66	40	1.65
Ford	1975	69	44	1.57
Nixon	1973	56	36	1.55
Johnson	1968	76	40	1.90

자료 : The Gallup Poll : *Public Opinion* 1982, 242 Ferguson & Rogers(1986: 25)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정책의 수행보다는 개인적 인기도가 언제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레이건 역시 마찬가지다. 표에서 보듯이 언론의 보도가 흔히 대중들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것은 아마도 '우리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대중들의 선입견 혹은 믿음과도 일치하겠지만), 레이건이 특별히 대중들의 인기를 받았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문제는 레이건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다른 대통령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레이거니즘이 제기했던 '미국의 부활'(America is Back)이라든지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이다'(We Keep America on the Top of the World)라는 신보수주의가 동원한 정치적 상징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미국의 부활, 세계 최고의 신애국주의적 상징은 레이거니즘을 구성하는 핵심적 지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레이거니즘의 성공은 레이건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미국,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이라는 미국적 민족주의(혹은 애국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의미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적 민족주의를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러한 대중의 정서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바로 미국의 언론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레이거니즘의 성공을 설명하는 기본틀로서 우리는 '문화의 정치'인 탈정치화와 정치소비주의라는 명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의 정치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자. 미국사회 안에서 전후세대라 할 경우 2차대전후 세대, 한국전쟁후 세대, 쿠바사태후 세대, 빈곤과의 전쟁후 세대, 베트남전쟁

후 세대, 니카라구아후 세대, 이라크전쟁후 세대 등의 다양한 세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각 사건의 시기마다 미국의 대중들은 2차대전에서 미국의 역할, 쿠바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위협, 베트남전쟁, 다시 중남미에서 공산게릴라와 중동에서의 테러리즘의 위협 등과 같이 각기 다른 대중동원의 '공식적 레토릭'(official rhethoric)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 각기 다른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들어 전후세대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탈정치화와 탈규범화가 그것이다. 대다수 미국 국민들이 탈정치화, 탈규범화되고 절망주의적이 되어 모든 공적인 문제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A. Wolfe는 신보수주의가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문화적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미국인들이 점차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문화적으로 예민해지고 있다. 다른 사회에서 정치적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계급간의 부의 분배, 산업에 대한 통제,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 사회 부문간의 적대가 미국사회에서는 이들 문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집단들에게만 관심을 끌 뿐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하는 고전적인 정치에 대한 질문은 소수 엘리트들의 관심일 뿐이며 대다수 대중들과는 무관하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전통적인 정치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지루함과 순간적인 관심이 복합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 이들은 다르다. 그들은 전쟁을 없앨 수 없어서 정치를 없애버렸다. 국가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국가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가고 있다. (Steinfels, 1979:78-79에서 재인용)

인용에서 보듯 정치적 무관심, 탈정치화의 경향은 미국 대중들의 정치문화에서 중요한 속성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정치에서 문화로의 이동은 신념이나 가치관의 변화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탈정치화의 경향과 문화에로 관심이 옮겨가는 현상을 정치영역의 의미가 축소되고 문화가 중요해 진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문화가 정치적 사회적 통제의 영역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문화가 미국사회의 사회경영(social management)의 영역으로 부상했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바로 문화의 정치학을 요구한다. 미국정치의 헤게모니구성과정에서 언론매체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바로 문화의 정치 안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언론매체가 지니는 중요성은 끊임없이 증대해 왔다. 미국의 경우 대중들의 정치참여를 부추기거나 그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적 메카니즘이 부족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반수 정도만이 투표에 참여한다. 다른 정치참여행위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지도자 인지도(leadership knowledge index)를 보면 1974년에도, 닉슨, 포드, 윌러스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대단히 낮음을 보여준다.

1980년 Michigan Survey를 보면 52%의 유권자들이 레이건의 인플레이션과 실업정책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14%는 레이건이 실업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42%는 레이건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 연속선상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8%는 레이건이 자유주의자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Carter가 보수주의자라고 대답

〈표 15〉 투표자와 비투표자의 정치적 지식의 정도

	Vote	No Vote
high knowledge	13.4%	16.5%
low knowledge	27.4	42.7

* 사료: Ginsberg(1986) p.43 ; 여기에서 high knowledge란 14명 정치인 가운데 7명 이상의 정치적 입장을 구분한 정도를 가리킨다.

했다. 4년뒤인 1984년 대통령선거 시기에 43.5%의 유권자가 레이건의 정치적 입장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동시에 74년 자료는 정치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 중 비투표자가 투표한 사람들 보다(정치적 지식을 갖추고 있든 아니든) 더 자유주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미국의 선거가 일반대중들의 각성된 정치참여의 과정이 아니며, 미국 민주정치의 문제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민주정치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 미국의 정치체제가 효과적으로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무지에 근거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중의 정치적 무지와 무관심에 근거한 정치적 안정이란 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대중주의'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이 점은 바로 대중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성향이 뉴딜적 연대, 즉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개입', '사회복지예산 확충', '환경·실업·보건문제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가 미국사회 지배적인 정치적 분위기로 자리잡는 상황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자신들의 생활 조건의 요구에 따라 대중들은 정부지출과 정부의 개입을 원하고 있으나, 대다수 언론매체는 이러한 대중들의 정치적 정서와 정치지향을 반영하기 보다는 정책집행자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의 정책과 가치를 전달했던 것이다. 동시에 대중들은 공공영역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정보와 지식을 갖춘 판단과 투표행위를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은 정치과정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라는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탈정치와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던 것이다. 미국의 정치현실의 인식에 있어서 탈정치화 경향을 언론을 통한 '문화의 정치'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제 문화의 정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메카니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다시 반복하지만 레이거니즘의 성공은 레이건의 정책의 성공이 아니라 신보수주의를 구성하는 미국적 대중주의의 성공, 다시 말해 '미국의 부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미국적 민족주의의 성공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언론매체가 민족주의의 정서를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미국 저널리즘 특히 텔레비전 뉴스의 현실구성(reality construction)방식을 신보수주의 정서와 관련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미국 저널리즘이 '인간 레이건'과 '정치인 레이건'을 분리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저널리즘은 전통적으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60년

대와 워터게이트를 거치면서 이러한 전통은 약화되기 보다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는 언제나 정치인들의 반발과 비판, 때로는 협박의 대상이었다. 레이건 역시 이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인으로서 레이건은 늘 그랬듯 갈등과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미국 저널리즘은 이란 인질사태와 그라나다 침공사태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 미국의 부활, 미국적 용기의 부활을 강조하는 논조를 통해 미국 대중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애국적 정서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레이건 당시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미국인 인질사태에 대한 분석을 보면 미국언론에는 중동국가들과 미국의 갈등, 중동에서의 미국 정책, 레바논 내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으며, '미국의 무고한 시민이 인질로 잡혀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인질을 잡고 있다' '멍청한 테러리스트'와 '용감한 시민정신'의 대립으로 묘사되었다(*Hallin*, 1986). 이때 인질사태의 정치적 배경(예를 들어 레바논 내전에서 반시아파의 편에서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레이건 정부의 결정)에는 거의 보도가 없고 테러리스트들이 무고한 미국시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정치적 상징만이 주류를 이루었다. 레이건은 바로 중동정책을 수행하는 정치인이기 보다는 테러리스트들을 응징하는 '람보'로서 무고한 미국시민을 구출하는 영웅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악마적 테러리즘과 이에 대응하는 선량한 미국시민의 대립에서 보듯 미국언론의 현실구성은 바로 미국대중의 정서에 호소했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언론이 레이건의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논쟁들을 보도함으로써 신보수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전파한 것이기 보다는 전통적인 미국식 민족주의와 우월사상인 '미국의 부활'을 대중의 정서와 결합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신보수주의가 성립하는 기반은 대중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여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정서적 차원에서 미국경제의 쇠퇴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하락을 우려하는 대중정서가 신보수주의 성립의 토대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 대중주의가 지니는 정치적 효과는 국민의 탈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

5. 사회운동에서의 신보수주의의 성공테제: 자원동원의 우세

앞절까지 우리는 신보수주의 성립과정을 레이건 경제정책, 민주당의 보수화, 언론을 통한 대중주의 부활 등의 테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테제들은 주로 정책집행자나 정당, 언론인 지식인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 사회에서 지배적 이념의 성립과정을 보면 지배블럭의 의도가 계획에 의해 공백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적 이념의 성립에는 사회세력의 구체적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러한 세력간의 갈등을 통해 우세한 힘을 행사한 집단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성립 역시 보수와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의 갈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80년대 미국사회에서 신보수주의 물결이 지배적이라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보수

와 진보, 혹은 보수와 자유주의적 사회적·정치적 운동들이 대립하여 왔다.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생명권운동은 종교단체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1980과 84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레이건에게 대단히 유리한 국면을 창출했다. 한국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는 낙태하는 장면을 상세히 담은 비디오 영화는 미국 여권운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G. Ferraro는 낙태지지자로 곤욕을 치루었다. 이를 통해 보수주의 세력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였다.

이들에 비해 자유주의적 운동단체들은 The Day After, Testament 등의 영화를 통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레이건의 Star Wars전략(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에 대한 비판의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개정을 주도한 Common Cause, 여권단체인 NOW(National Organization for Woman) 등은 주로 환경, 소비자 운동, 직업안정법, 임금정책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단체들이다. 이들 사회운동은 주로 60년대 반전운동과 흑인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은 '새로운 정치연합'(New Politics Coalition)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Reconstituted Right Coalition은 레이건의 우주전쟁계획(Star Wars Plan)과 세금감면과 세금정책 단순화계획을 지지하고 주로 미국의 전통적 가족문제를 들고 나온 보수단체였다.

이러한 보수적 운동과 자유주의적 운동의 대립에서 자유로운 사상과 토론의 시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수진영은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과 토론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게 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미국사회의 공공영역이 사적소유에 근거한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정보와 지식, 주로 이슈로 제기되는 정치 사회적문제의 종류가 대단히 제한되거나 자원동원이 가능한 집단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Public Affairs Council 등은 issue management group를 운영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Heritage 재단, 후버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등이다.

반면에 자유주의 진영은 60년대 이래 자발적인 "public interest group"에 의존해 왔다. Common Cause, NOW, Sierra club, Friends of the Earth,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등의 단체들이 내는 기부금과 자원봉사가 운동의 기초였다.

이러한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대립에서 누가 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느냐가 핵심적 문제가 되었다. 신보수주의의 주도권 확보는 바로 보수진영의 자원동원 능력이 우세한 결과인 것이다. 이때 신보수주의적 헤게모니 성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미국사회의 공론 형성 과정, 즉 대중들의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시장 메카니즘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이다. 공론 형성과정의 사유화는 공평한 정보공유와 토론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보수주의의 승리는 예정된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Give to the College of Your Choice
I Mind Very Much if You Smoke

Don't Be Fuelish
People Start Pollution, People can Stop It
Only You Can Prevent Forest Fires
America: It Only Works as Well as We do
VD is for Everybody

이들 공익광고의 내용을 보면 제기되는 문제들이 모두 정치와는 무관한 것들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 무능력, 운수사나움, 무지등으로 일어난 문제들이다. 한 분석에 따르면 62%의 공익광고가 문제만 있고 원인은 없다고 한다. 나머지 38%가운데 29%가 개인에게 원인이 있고 6%가 사회전체에 그리고 단 3%만이 기업에 책임이 있는 문제들이었다. 정부나 관료기구가 문제의 원인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공익광고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들이다. Keep America Beautiful 캠페인은 Pepsi-Cola, Ford Motor Company, American Can Company 등이었다. 공익광고 이외에도 Direct Mail, Phone Bank 등의 수단도 대단한 대중적 매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광고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사회운동의 대립에서 자원동원 능력의 우세와 열세가 바로 운동의 성공과 위축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 자원동원 능력의 열세로 커다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신보수주의의 성립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신보수주의 헤게모니의 형성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자유주의적 신사회운동과 보수진영의 운동이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하층 노동자계층이나 소수민족집단은 이러한 과정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진영의 운동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은 계층들 중심의 운동이고 하층노동자나 소수집단은 미디어들에 의해 '유리', '불리', '지지', '반대' 등의 관심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이든 반핵운동이든 혹은 사회적 이슈로서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정부의 부채문제, 미국의 중동정책 등 모두가 중간층 이상의 계층들에게 관심을 끄는 문제일 뿐이다.

더욱이 이들 계층에게 관심을 끄는 노동조합의 문제나 실업문제 등은 미국 언론매체들이 별달리 보도하지 않는 것들이다. TV Network나 어떤 신문도 노동문제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없다. 하층계급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종교문제, 인종문제, 애국주의자 단체나 재향군인회 등도 거의 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평소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사건이 터지면 병리적 현상으로 폭발적으로 보도되다가 다시 사라지게 된다.

결국 하층 노동자와 소수집단들이 헤게모니 창출의 과정에 참여하고 다른 계층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1) 조직화하거나 2)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중간 계층과 연대하거나, 3)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항의, 집회, 시위 등의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첫째의 하층계급의 조직화는 미국사회의 경우 서구의 어느 사회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중간계층 그리고 진보적, 자유주의적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과의 연대는 60년대 흑인운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New Politics Coalition이 남아프리카 인종차별문제에 관심을 갖고 미국사

회 안에서 인종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번째 직접적 항의 시위나 집회는 사실상 금기에 속한다. 미국언론들의 시위나 파업보도를 보면 주동세력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들은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투표나 선거를 통해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들이 소수라면 언론은 이들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다수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묘사하므로써 사회안정을 해치는 세력으로 부각시킨다. 간헐적으로 폭발되는 흑인폭동도 이와 같은 공론의 과정, 헤게모니의 형성과정에서 흑인집단이 배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보수적,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의 대립에서 기업과 지식인 집단의 강력한 물질적 지원을 받은 보수적 사회운동은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신보수주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중산층 이상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부터 배제된 흑인 및 하층 계급은 정보와 토론의 공간인 공공영역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의 이해와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사회운동 영역에 조차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보수주의적 헤게모니로부터 배제되었던 것이다.

Ⅵ. 맺는말

이상에서 우리는 미국사회 신보수주의의 성립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의 역할을 검토해 보았다. 2절에서는 미국사회의 공공영역의 성격변화를 주로 사유화 과정,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네번째 절에서는 미국사회에서 신보수주의가 성립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뤘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보수주의가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 정치사상을 이어받고 있으며 그것은 주로 미국의 보수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을 구성했던 지식인 집단이 미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이념적 틀로서 제기한 것임을 검토했다. 끝으로 우리는 신보수주의의 성립과정에 대해 80년대 레이건 당선과 재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언론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몇가지 테제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카터의 실패와 레이건의 성공을 통해 반영되는 경제현실, 민주당의 보수화라는 현실 정치 이념의 선택, '문화의 정치'란 측면에서 뉴스대중주의와 신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운동의 대립과 갈등에서 보수진영의 승리와 하층과 소수민족의 정치적 배제 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신보수주의의 성립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동시에 경제적 쇠퇴와 60년대 이후의 정치적 위기에 따른 지배블럭의 위기극복의 전략으로서 배태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보수주의 성립과정에 있어 언론은 미국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과 판단능력에 따라 '여론'을 반영하기 보다는 전통적 대중정서인 '미국의 부활'에 호소함으로써 대중을 참여하는 주체로 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2절에서 검토된 공공영역의 시장으로의 편

입과 그에 따른 뉴스의 상품화가 가져온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Allen, David.

1986 "Modern Conservatism : The Problem of Definition" *Political Quarterly*, vol.57, No.2. pp.

Bell, D.

1980 *The Winding Passage-Essays and Sociology Journeys 1960-1980*, Cambridge, Massachussets.

서규환 (역),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 디자인하우스, 1993.

Cook, Philip S., Gomery, Douglas, & Lichty, Lawrence W.

1989 *American Media: The Wilson Quarterly Reader*. Washington, D.C.: The Wilson Center Press.

Denison, Edward F.

1985 *Trends in American Economic Growth*, 1929-1988. Washington, D.C.: The Brooking Institute.

Ferguson Thomas & Rogers Joel

1986 *Right Turn: The Decline of the Democrats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Hill and Wang.

Friedman, Benjamin M.

1988 *The Consequences of America Economic Policy under Reagon and After*.

한국 신용평가 (역), 『심판받는 미국경제 』, 한국 신용평가 (주)

Ginsberg.

1986 *The Captive Audience: How Mass Opinion Promotes State Power* New York: Basic Books.

Hall, S.

1980 "Popular Democracic versus Authoritarian Populism", in A. Hunt (eds.), *Marxism and Democracy*, London: Lawrence & Wishant.

1985 "Authoritarian Populism: a Reply", *New Left Review* (5), (May/ June), pp.115-124.

Hallin, Daniel C.

1986 "Network News: We Keep American on Top of the World," in Todd Gitlin (ed.), *Watching Television*, New York: Pantheon Books, pp. 9-41.

Huntinton, Samuel P.

1985 "The Visions of the Democratic Party," *The Public Intertest* 79(Spring), pp. 63-78.

Jessop Bob, Bonnett Kevin, Bromley Simon & Ling Tom

1988 *Thatcherism: A Tale of Two Nations*. New York: Polity Press.

Kiewiet, Roderick and Rivers, Douglas.

1985 "The Economic Basis of Reagan's Appeal," in John E. Chubb and Paul E. Peterson, (eds.), *The New Direction in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The Brookigs Institution, pp. 69-90.

Miller, Arthur H. and Wattenberg, Martin P.

1985 "Throwing the Rascals Out: Policy and Performance Evaluations of Presidential Candidates, 1952-8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 pp. 359-372.

Nash, George H.

1976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 Movement in America since 1945*. New York: Basic Books.

Palez, David L. & Entman, Robert M.

1981. *Media, Power,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Piccone, Paul.

1987-88 "The Crisis of American Conservatism" *Telos*, No.74, Winter. pp.

Scott, Bruce R.

1985 "U.S. Competitiveness: Concepts, Performance and Implication", in Bruce R.,Scott & George C.Lodge (Eds.) *U.S.Competitiveness in the World Economy*,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Steinfels, Peter.

1980 *The Neoconservatives: The Men Who Are Changing America's Politic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American Neo-conservative Politics and News Populism

Myung-Koo K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roles American media have played in the formative process of neo-conservative hegemony since the 1970's. The study focused upon the ideological mobilization by the neo-conservative intellectuals and media journalists during the period of Reagan government

The study proposed the concept of 'news populism' as a mediating mechanism between the neo-conservative intellectuals and bureaucrats and the ordinary people. Employing this concept, the study argued that American media have set neo-conservative agenda and political mood among American masses, even though American people have support the New-Deal coalition and policies.

According to several opinion polls since the 1960's, American people have supported the

increase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welfare program and the continuing regulation of business sectors. American mass media, however, neither have paid attention to nor reflected such consistent support to the 'new-deal' policy. They tended to bolster the right-turning mood among neo-conservative intelectuals and institutional activities such as AEI, Hoover Institute and etc.

They also reinforced American patriotism like "America is coming back" through current affairs as well as news programs. These tendencies of news populism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formation of neo-conservative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강명구,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Tel: 880-6473(O), 889-7191(H)